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으로 바이오 대박 유한양행, 1.3조 기술 수출

안센과 내년부터 공동개발
유한양행 계약금·기술로
12억5500만달러 지원받아
안센 韓 제외 세계적으로
레이저티닙 독점 권리 가져

유한양행은 5일 안센 바이오텍 (이하 안센)과 비소세포폐암 치료를 위한 임상단계 후보물질 ‘레이저티닙’의 기술수출과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이번 계약에 따라 계약금 5000만 달러를 지급받고, 개발 및 상업화까지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로 최대 12억5000만 달러를 받게된다.

제품화 이후에는 매출 규모에 따라 두 자릿수의 경상기술료를 지

급받게 된다. 안센은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레이저티닙에 대한 개발, 제조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국내에서 개발 및 상업화 권리는 유한양행이 유지하게 된다.

유한양행과 안센은 레이저티닙의 단일요법과 병용요법에 대한 글로벌 임상시험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해당 임상시험은 2019년에 시작할 계획이다.

레이저티닙은 선택적이며 비가역적이고 뇌조직을 투과하는 경구용3세대 EGFR TK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 억제제로서, EGFR TK 변이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해 효능이 강력하고 1차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신

약이다. 현재 한국에서 임상 1·2상 시험을 진행중이다. 중간결과에 따르면 레이저티닙은 EGFR TK 억제제에 내성이 생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뇌전이 여부와 상관없이 확실한 임상효능을 나타냈다.

3단계 이상의 중증 부작용 발현율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양행의 이정희 대표이사 사장은 “안센은 폐암과 항암제 연구개발 분야에 우수한 전문성을 가진 최상의 전략적 파트너”라며 “이번 협업을 통해 폐암으로부터 고통 받는 환자분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본 치료제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켄싱턴 제주 호텔이 오는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로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피스트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터 맨틱 홀리데이 패키지’를 선보인다. /켄싱턴 제주 호텔 키 투 고(Turkey To Go)’를 선보인다.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연말·성탄절 호텔에서 즐겨요

호텔업계, 연말 마케팅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강남
‘원 스위트나잇’ 패키지

그랜드 힐튼 서울
‘스파클러 모먼트’ 패키지

머큐어 서울 엠베서더 강남
연인들 위한 ‘케렌시아’

호텔업계가 11월 들어 연말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연인들을 겨냥한 로맨틱 패키지부터 이색 프로모션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텔들은 연인들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크리스마스 등 연말 패키지도 일찌감치 내놓으며 고객 잡기에 분주한 모양새다.

◆연말은 ‘로맨틱’하게…

11월은 업계의 비수기로 꼽히지만, 빼빼로데이(11월 11일) 등 기념일이 있어 연인들을 위한 상품을 선보이기에 제격이다.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강남, 그랜드 힐튼 서울, 머큐어 서울 엠베서더 강남 쏘도베 등이 대표적이다.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강남은 ‘원 스위트 나잇’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에는 귀빈층에 위치한 프리미어 이그제큐티브 객실에서의 1박을 비롯해 뷔페 레스토랑 더스퀘어에서의 조식, 안프레 레스토랑의 디너 코스가 포함돼 있다.

그랜드 힐튼 서울의 ‘스파클러 모먼트 패키지’는 객실 1박, 조식 2인, 레이트 체크아웃(오후 2시) 서비스, 라운지 바인 테라스라운지의 해피아워 이용권을 포함하고 있다.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머큐어 서울 엠베서더 강남 쏘도베는 ‘케렌시아’ 패키지로 연인들의 마음을 공략한다. 패키지는 조식 및 해피아워 이용이 포함된 연장(오후 2시까지) 서비스, 피트니스 및 사우나 무료 이용으로 구성됐다.

켄싱턴 제주 호텔은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로맨틱 홀리데이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 패키지는 디럭스룸에서의 1박과 낭만적인 저녁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월드 퀴진 뷔페 라올레, 제주 한식 퀴진 돌미롱, 이탈리아 퀴진 하늘오름, 풀사이드 카페 케니라운지 중 한 곳에서 아침 또는 점심(2인)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실내에서 야외로 연결되는 가든 오션피니티 풀, 루프톱 스카피피티 풀뿐만 아니라 핀란드식 야외 사우나, 큐레이터와 함께 하는 호텔 내 갤러리 투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가족·친구·연인과 함께…특별한 연말

호텔들은 모임이 잦은 연말을 대비한 파티 패키지부터 칠면조 등 연말 분위기를 돋우는 음식 프로모션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여의도 메리어트호텔, 파크 하얏트 부산등은 각종 모임 및 행사를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 패키지를 마련하고, 예약에 돌입했다.

파크 하얏트 부산도 ‘페스티벌 이벤트’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모임의 성격과 규모,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셀트리온, ‘허쥬마’ 승소… 日 진출 청신호

내년 유방암 치료제 본격진출

셀트리온은 일본에서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허쥬마’의 유방암 치료 관련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승소로 내년 일본 유방암 치료제 시장에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쥬마는 제넨텍이 개발하고 로슈가 판매하는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다. 셀트리온은 지난 3월 일본 후생노동성(MHLW)으로부터 위암 적응증에 대한 허쥬마의 판매를 승인받았으며, 셀트

리온헬스케어와 일본 유통 파트너사인 니폰카야쿠를 통해 지난 8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에 셀트리온이 무력화시킨 특허 2건은 2020년 만료를 앞둔 조기유방암 환자 치료에 관한 특허로 일본 내 유방암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장애물이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16년부터 특허무효화를 시도했으며, 이번 특허 무효 판결로 허쥬마 적응증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은 이르면 내년 초에는 변경 허가가 완료되어 일본 유방암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일본 내 오리지널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난 3년 여간 지속적인 특허 무효화 시도 끝에 오리지널의약품의 주요 적응증 시장 진출의 허들을 넘어 일본 유방암 환자들에게도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보수적인 제약바이오 시장으로 손꼽혀 온 일본에서도 바이오시밀러 관련 우호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허쥬마가 조기에 일본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휴비스트제약 부회장에 임승원

휴비스트제약은 5일 임승원 전 한국거래소 상무(사진)를 부회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임부회장은 1960년생으로 재무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에서 증권발행등 자본시장관련업

무를 담당했으며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상무와 시장감시본부상무를 역임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을 거쳐 지난 10월말까지 데일리금융그룹 대표이사로 일했다.



회사는 임 부회장영입을 계기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체제구축을 통해 향후 2년 내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바이오 5개 단체 ‘나고야의정서’ 공동대응

(생물 다양성 협약)

공동역할 모색·효율성 제고
중 등 국내외 동향 공유키로

국내 바이오 관련 5개 단체가 나고야의정서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 제약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 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각 협회별로 나고야의정

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회원사의견수렴, 정부 대응 등을 각각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유관 업계간 공동 역할을 모색하고 업계의 애로와 요청사항을 정부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동대응을 결정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외국의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해 의약품·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 제3국 정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해 2014

년 발효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8월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국내 업체들은 천연물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제조에 투입되는 원료(유전자원)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 수입대금 외에 별도로 상품화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로열티 명목으로 해당 국가에 지불해야 한다.

5개 단체는 우선, 생물유전자원의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인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를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며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세경 기자

차별화 제품 SNS타고 ‘인기상승’

푸르밀 이색 컵커피 2종
‘라떼+홍차·녹차’ 품미더해

삼양식품 볶담떡볶이 2종
전자레인지 간편조리 가능



이번에는 커피에 홍차를 넣어봄(왼쪽)과 이번에는 커피에 녹차를 넣어봄 /푸르밀



볶담떡볶이(왼쪽), 까르보 볶담떡볶이 /삼양식품

식품업계가 차별화된 신제품 출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화제가 된 식음료 제품들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제품 구매 인증샷, 먹방, 나만의 레시피 개발 등 먹거리에 있어 색다른 재미를 추구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가장 반응이 좋은 것은 이색 패키지와 네이밍, 맛 등 트렌디한

매력을 내세운 신제품들이다.

푸르밀은 이색 컵커피 ‘이번에는 커피에 홍차를 넣어봄’과 ‘이번에는 커피에 녹차를 넣어봄’ 2종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신제품은 푸르밀이 봄 시즌 한정판으로 선보였던 ‘밀크티에 딸기(초코)를 넣어봄’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후속으로 출시됐다. 진하고 부드러운 라떼 커피에 향긋한 홍차, 녹차의 품미가 더해져 풍성한 맛이

특징이며, 산뜻하고 감각적인 패키지 디자인이 돋보인다.

삼양식품은 특유의 중독성 강한 매운 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볶담떡볶이’의 맛을 살린 ‘볶담떡볶이’ 2종을 출시했다. 하얀 매운맛을 담은 ‘볶담떡볶이’와 부드러운 크림과 매콤함이 조화를 이루는 ‘까르보 볶담떡볶이’로 구성됐으며,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 가능하다.

/석인용 기자 parki7054@

이대목동병원 14일 ‘취장질환 건강강좌’

이대목동병원 취장담도센터는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2층 대회의실에서 ‘취장질환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희망의 빛 줄기를 찾아서(윤원재 취장담도센터 교수) ▲취장암! 수

술로 치료가 가능하나?(이희성 취장담도센터 교수) ▲취장암의 방사선 치료(김규보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취장질환의 식사 관리(강연하 영양사) 등의 강연과 함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선영 취장담도센터장

이 이번 강좌는 사전신청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능하며 선착순 120명까지 기넨품이 제공되며 추가 로 경품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